

‘관심의 장(field of care)’의 전이로 읽는 고려인의 문학(글쓰기)과 고향 공간*

임형모*

|| 차례 ||

- I. 문제 제기: ‘관심의 장’의 전이와 고향 공간
- II. 집단이주와 낯선 장소와의 대면
- III. 카자흐스탄의 고향 공간
- IV. 우즈베키스탄의 고향 공간
- V. 결론: 돌아오지 않을 권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려인문학에서 ‘관심의 장(field of care)’이 전이됨에 따라 에스엔게(СНГ: 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지역이 고향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고려인들은 제2의 고향으로 생각했던 원동에서 중앙아시아로 집단이주되어 에스엔게 지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떠밀려오면서 수많은 낯선 장소 및 공간과 대면하게 된다. 자발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지리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소공포(topophobia)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주 전에 지녔던 공포감은 황폐화되고 텅빈, 광활한 대지에 부러졌을 때 실제로 현현되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기에 공간은 장소로 바뀌기 시작했다. 비록 강압적인 방식으로 관심의 장이 바뀌었으나 낯선 장소와 공간을 새로운 고향으로 구성해 나갔던 것이다. 에스엔게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에서 고려인의 공간적 세계관은 자연, 콜хоз(колхоз), 구역(촌)에 닿아 있다. 공화국명칭 자체가 거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9063).

**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교육원 조교수

한 공간 개념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준 씨르다리아강과 아무다리아강을 고마움의 대상으로 형상화하면서 고려인 폴호즈를 그들만의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잃어버렸던 문화적 자산을 회복했으며 원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친밀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장소공포는 장소애(topophilia)를 띠며 그 결과 에스엔게 지역은 고향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주제어 : 고려인문학, 관심의 장, 고향 공간, 장소, 원동,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문화지리학, 디아스포라, 독립국가연합, 레닌기치, 고려일보

I. 문제 제기: ‘관심의 장’의 전이와 고향 공간

본 연구는 고려인문학에서 ‘관심의 장(field of care)’이 전이됨에 따라 에스엔게(СНГ: Содружество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지역이 고향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문화지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관심의 장은 “사람과 장소 또는 배경의 정서적 유대”¹⁾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의 자발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고려인의 삶은 자발적이면서 비자발적이었고 더욱이 자발성을 가장하기도 해야 했던 곡진한 삶의 연속이었다. 먹고살기 위해 민초들이 중심이 되어 최초로 연해주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장소애(topophilia)에 기반을 두고 나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한인과 러시아인의 갈등이나 소련과 일본의 관계 등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하면서부터²⁾ 장소애

1) 이-푸 투안,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p.21.

2) 이채문에 따르면, 소련정부는 국경 간의 민족관계를 이용하여 국경과 인접한 국외의 지역에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피드몬드 원칙’을 1920년대 본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족자결적 성향을 지니었던 피드몬드 원칙은 1930년대 들어와서 인종청소(этническая чистка)정책으로 선화하게 된다. 이유는 대규모의

는 장소공포(topophobia)의 양상을 보이며 양가적인 속성을 띠게 된다. 조선을 등지고 연해주에 정착하는 과정은 안 그래도 낯선 장소와 대면하는 마당에서 장소공포를 전제하고 있었으나 역사적 현실은 상황을 더욱 급박하게 몰고 갔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고 장소공포가 안겨 주는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며 연해주를 자신들만의 고향으로 만들어갔다. 부연하자면 전제된 “불안의식을 공유하고 소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낯선 장소에 살고 있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기억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서로를 호명”³⁾하는 방식으로 불만의식에 항거하며 고향을 구성해 나갔던 것이다.

조선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 속에서 길 위에 섰고, 급기야 연해주에서 또 다른 고향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디아스포라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덧붙이자면 이때부터 고려인의 삶은 고향찾기의 여정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타민족과 공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만 했던 삶이 펼쳐지게 된다. 그 여정은 ‘조선→원동 고향 공간→에스엔게 지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고향 공간)’ 등으로 확장되었다. 일제의 극심한 억압과 양반의 수탈 등을 피해 살기 위해서 길 위에 나섰던 사람들은 러시아령인 연해주에 안착했고, 이후 항일무장투쟁의 과정에서

외국인이 러시아로 이주함으로써 외국인 혐오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소련의 영향력이 미묘하게 교차하였던 한국·만주·소련 간의 국경지역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만주와 한국에서의 일본의 지배적 영향력이 한인들을 통해 소련 극동지역까지 미칠 것을 염려했던 소련 측의 우려가 한인 이주 문제의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이채문, 『동토(凍土)의 디아스포라』,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pp.309-313 참조).

- 3) 고려인들이 고향을 구성했던 원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서 고려인문학의 본질을 불만의식으로 읽어낸 글도 있다(임형모,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낯선 장소와 공간 연구: 문화지리학으로 읽는 고려인문학」, 『한국문학과 예술』 제25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8, p.217 참조).

더 많은 수의 농민, 노동자, 지식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해 왔다. 이후 연해주를 중심으로 원동(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일대에 터를 잡고 살아가면서 원동은 고향 공간이 된다.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자발성에 기반했으나, 중앙아시아로 집단이주되어 에스엔게 지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떠밀려 오면서 고려인들은 또 다른 낯선 장소와 대면하게 된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고향을 상실케 되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역의 장소로 ‘추방’되었던 것이다.

집단이주 당시만 해도 조선은 고국이었고 고향이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로 집단이주된 이후에는 원동이 고향이 되고 소비에트가 조국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에 이른다. 관심의 장이 바뀌면서 낯선 지역과 공간이 고향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자발성에 따라 순리대로 관심의 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방식에 따라 삶의 공간이 하루아침에 변모하게 되는 것인데, ‘강제이주’라 불렸을 정도로 판이했던 공간적 대이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로서 고려사람 전체의 삶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또 다른 사회와 조우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새롭게 ‘고향 공간’을 건설해 나가는 가운데 민족적 정체성을 고민하며 삶의 희로애락을 조선말로 혹은 타민족의 언어로 수행함으로써 문학적 글쓰기로 승화시켜 나갔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인들의 눈에 비춰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낯선 장소와 공간이 고향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문화지리

4) 제목에서 ‘문학’과 ‘글쓰기’를 함께 명기한 이유는 고려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고려인문학은 초기에는 문학이라고 부르기가 저어되는 수준의 아마추어적인 글쓰기가 다수였다. 그러한 아마추어리즘이 시간이 흐르면서 문예미학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바, 고려인문학에서 본격적으로 문학적 글쓰기의 시대가 열린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가 있다.

학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했다. 문화지리학이 사회적 관계의 제 측면들과 인간과 물질세계의 연계성, 문화와 자연 간의 연계성을 다루면서 인간 복리에 중심을 두는, 무엇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들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정치성에 근거하고 있는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을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미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었다. 자발적이기도 했으나 던져진 삶이기도 했기에 변화하는 낯선 장소와 공간 속에서 문화적 차이가 만들어가는 문학적 글쓰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를 추적한 연구들은⁵⁾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 변전하는 고향의 의미를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들이지만, 디아스포라가 “배출요인과 아울러 정주국에 있어서 이주자의 정착 환경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정착지에서 새로운 소속(belonging)의 장을 창조하려는 과정에서 다수의 입지, 시간성, 정체성이 새롭게 접합”⁶⁾된다는 관점에 따르자면, 고향의 의미를 밝히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생성케 한 장소 및 공간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불어 고향 공간으로서 원동을 중심에 두고 장소 및 공간의 의미를 밝힌 연구들은 있으나⁷⁾ 에스엔게 지역을 중심으로

5) 최강민,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시에 나타난 조국과 고향」, 『탈식민과 디아스포라 문학』, 제이 앤씨, 2009 ; 강희진, 『아무다리야의 아리랑』, 문학들, 2010 ; 김낙현, 「디아스포라 고려인 시에 나타난 조국과 고향의 변화양상」, 『語文研究』 제43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 임형모, 『조선사람·소비에트 고려인·고려사람 그리고 “고향”』, 신아출판사, 2016.

6) 데이비드 앳킨슨·피터 잭슨·데이비드 시블리·닐 위시본 편저, 이영민·진종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옮김, 『현대 문화지리학』, 논형, 2011, p.334.

7) 박안토니나, 「문화지리학 관점에서 본 김준의 장편소설 『십오 만 원 사건』에 관한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5집, 국제한인문학회, 2015 ; 박안토니나, 「구소련 고려인 소설의 인문지리 연구: 『십오 만 원 사건』과 『금각만』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 임형모, 앞의 글.

고찰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고향 공간을 문화지리학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했다.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가 통시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변모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관심의 장이 비자발적 차원에서 전이되고 그 결과 에스엔게 지역이 고향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은 집단이주에 따른 민족정체성을 보존하는 문제 이상으로 고려인문학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따라서 본고는 고려인 신문인 『레닌기치』와 『고려일보』 등의 문예면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려인의 글쓰기를 고찰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향 공간의 전이가 지닌 미학적 성과는 물론이고 고려인문학이 갖는 위상을 되새겨 보고자 했다.

II. 집단이주와 낯선 장소와의 대면

고려인들이 1937년에 원동으로부터 에스엔게 지역으로 집단이주되어 살았던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Уштобе)의 고려인 공동묘지에 남아 있는 기념비에는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⁸⁾ 라고 기록되어 있다. “폐허와 유물은 예전의 삶과 행동들이 펼쳐졌던 구체적

8) 동일한 내용을 담은 러시아어로 된 비문에는 “ЗДЕСЬ В ЗЕМЛЯНКАХ ЖИЛИ КОРЕЙЦЫ ДЕПОРТИРОВАННЫЕ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9.X.1937 г. ПО 10.IV.1938 г.”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초기’라는 말은 누락되어 있다.

인 장소에 대한 안내자”⁹⁾라는 점에서 그리고 “진정으로 뿌리내린 공동체는 성지와 기념비를 세울 수 있”¹⁰⁾다는 점에서 이 비문은 과거 고려인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문에서만 보더라도 집단이 주된 고려인의 척박한 삶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는 여러해전 그와 같이 꽃은 비가 내리는 가을날 밤에 잠불역에서 어느 민족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웨치는 소리, 우는 소리를 들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을 짐자동차에 실어다가 락타가시덤불과 위성류들 사이에 부렸습니다. 흰옷우에 부연 솜저고리를 입은 그 사람들은 자존심을 잃고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운전수들과 민경원들의 장화발을 움켜잡으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도로 실어가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그런 한지에서는 아이들도 아침까지 견뎌내지 못할것이라고들 하였습니다. 운전수들은 장화발을 움켜잡는 애원자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기들은 바로 거기에 부리고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달리 할수는 없다고 명령을 어기면 총살까지 당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늙은이는 그 이튿날의 일도 생각났습니다. 차반인 그는 안해와 함께 호기심에 집에 몰려 밤에 그 무서운 일이 있었던 곳에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등이 이룬 허연 언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언덕은 자루들로 덮여있었고 그 곁에는 아마도 그 자루들에서 쏟아놓았을 흰 쌀이 무덕무덕 쌓여있었습니다. 안해가 무슨 말인지 하였으나 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맞혔습니다. 젊은이들이 늙은이들과 아이를 데린 여자들을 둘러싸고 자기들의 등으로 찬바람을 막아주었던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그 등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덕이 무너졌습니다.¹¹⁾

9)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7, p.447.

10)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p.316.

11) 송라브렌체, 「삼각형의 면적」, 『레닌기치』, 1989. 07. 11., p.4.

구소련 당국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추방을 당한 것은 “극동 지방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¹²⁾ 때문으로 이주 대상은 “극동지방 국경부근 구역들”¹³⁾로 한정됐다. 실상 조선인은 국경 부근에 많이 거주했으며 그 때문인지 경계인으로서 소련 당국으로부터 일본의 침자라는 오해를 받았다. 그러한 인식이 축적되면서 집단이주를 가능케 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¹⁴⁾ 또한 이주 후에는 “근동에 위치한 나라들을 통해 일본인들이 새 거주지역의 조선인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고려하여”¹⁵⁾ 거주 또한 제한을 당했다. 「공포」(1988)에서 “이 강은 아마 도시의 경계선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이 강을 건널 권리가 없는 것이다”¹⁶⁾라고 씨르다리야강을 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와 같은 진술들의 전제는 소련 지역에 일본인들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며 그 통로가 조선인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연유로 인용문에서처럼 고려인들은 ‘잠블

12)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우효) · 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 편, 김명호 옮김, 「소비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와 전 소연방 공산당(불세비키) 중앙위원회의 결의안 No. 1428-326cc」, 『스탈린체제의 한인 강제이주: 구소련 국립중앙문서보관소 공개 극비문서』,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p.97.

13) 위의 책, 같은 곳. / 그러나 실상은 “국경부근에 위치하지 않았던 구역들—라조, 빠르 짜잔스끼, 우수리, 끼로프스끼 등에서도 강제이주 대상자로 지목되었다(「10월혁명 국립 중앙 문서보관국 공개 / Фонд 5446, оп. 57.」, 위의 책, p.99)”고 한다.

14) 아감벤은 생명정치를 논하며 죽여도 처벌받지 않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유대인을 호모 사케르의 명백한 사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pp.230-231 참조), 사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경계 영역에 남아 있던 고려인들 또한 스탈린이 행했던 인종청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자행했던 바와 같은 호모 사케르와 다르지 않았다.

15) 「암호전문: 신속히 전달할 것. 누설방지」,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우효) · 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 편, 앞의 책, p.106.

16) 한진, 「공포」, 『레닌기치』, 1988. 05. 25., p.4.

역’에서 다시금 ‘락타가시덤불과 위성류들사이에’ 그리고 ‘찬바람이 부는 그런 한지’의 낯선 공간으로 흩어져서 말 그대로 부러졌다. 그 결과 그러한 한지에서 ‘젊은이들이 늙은이들과 아이를 데린 녀자들을 둘러싸고 자기들의 등으로 찬바람을 막’기 위해 싹고 온 쌀을 쏘아 놓고 그 자루들을 덮고서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에서 첫날밤을 견뎌야만 했던 결과로 이어졌다.

3. 이주시 이주대상 조선인들은 소유물, 농기구, 동물 등을 소지할 수 있다.
4. 이주민이 두고 간 동산, 부동산, 파종 종자 등은 가격을 계산하여 보상한다.
5. 이주대상 조선인이 원하는 경우 국외로 떠날 수 있게 하고 간청하는 경우 국경 통과규율을 완화한 후 방해하지 않는다.¹⁷⁾

위와 같은 결의안은 명목일 뿐 거의 지켜지지 않았으며, “스탈린의 인민위원들 생각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단지 ‘사회주의 집단화’에 의해 황폐화되고 텅빈, 광활한 대지에 삶을 개척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에 필요했을 뿐이”¹⁸⁾였다. 이유도 모른 채 아무런 연고도 없이 고려인들은 그렇게 중앙아시아의 낯선 공간에 버려지다시피 내던져졌다. 결과적으로 미지의 장소공포가 실제로 현현된 것이었다.

- 1) 가는 길도중에 씨비리에 들어서면 눈이 쌓여 백설강산이며 추위가 심하여 침을 뱉으면 고드름이 되어 독감에 걸릴수 있고 사막지대에 가면 학질에 걸려 길을 가다가 누워 앓을수 있다고 주로 건강에 대해 걱정하

17) 「소비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인민위원회와 전 소연방 공산당(불세비키) 중앙위원회의 결의안 No. 1428-326cc」,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우호) · 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 편, 앞의 책, p.97.

18) 「10월혁명 국립 중앙 문서보관국 공개 / Фонд 5446, оп. 57, д. 52」, 위의 책, p.117.

는 분도 있고 인적없는 사막지대나 갈밭속, 진펄로 가면 어찌겠는가고
 살 곳에 주목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가는 곳에는 참대가 나고 갈대가
 팔뚝과 같이 굵고 목화가 꽃피고 수박과 참외가 물동이만큼 크며 벼
 한이삭에 400여알이 달린다고 농사에 관심을 더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내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얼굴얼굴들에는 불만의
 빛, 분개의 빛이 흐르고있다. 정든 마을, 살던 집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가!¹⁹⁾

- 2) -영계(여기) 조선 사람들은 사흘 후에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란다. 당이
 그렇게 지시 내리렀다. (중략) 어머니는 계속 남의 말하듯이 담담신데
 아버지는 완전히 말문이 닫혔는지 죄 없는 담배만 피우고 또 피우셨다.
 (중략) 아버지, 더 좋은 고장에 보내는 모양인데 빨리 짐 싸시오. (중
 략)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이 마을 조선사람들이
 이십여호면 적어도 80-90명은 될텐데 한꺼번에 이주시킨다면 블라지
 워스트크 같이 큰 고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사흘 말미를 받았으면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뉘를 놓고 저렇게 우두커니 온돌만 지키니 나라도 거들어야 한다. 나는
 신나게 제 물건을 챙겼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힘겹게 일어나 세간을
 이리저리 옮겨놓았다.²⁰⁾

장소공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친밀성과 관계가 있다. 친밀성이 상실
 될 때 장소애는 장소공포로 전환되기도 한다. 더욱이 그것이 한 번도 경험
 해 보지 않은 장소라고 했을 때는 공포감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장소의
 가치는 특별한 인간관계의 친밀감에서 비롯된 것”²¹⁾이라고 한다면 ‘당이
 그렇게 지시’하는 행위는 일순간 모든 친밀성을 무너뜨리는 장소공포를 불

19) 김기철, 「이주초해: 두만강-씨르다리야강」, 『레닌기치』, 1990. 04. 13., p.4.

20) 이정희, 「희망은 마지막에 떠난다」, 『고려일보』, 2002. 04. 12., p.16.

21)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앞의 책, p.225.

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은 「이주초해」(1990)에서 이주가 결정된 후에 사람들이 내보이는 반응이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하루길도 열흘을 준비 해가지고 떠나라 했는데 수천리 길차비를 하루에?”²²⁾ 라고 반문하는 부분에서 그 길이 매우 먼 길임을 짐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발화이다. 건강과 살 곳을 걱정하기도 하고 풍성한 농사를 생각하는 양가적 감정을 보이나 기저에는 장소공포가 주는 두려움이 깊게 내재되어 있다. 2)의 「희망은 마지막에 떠난다」(2002)는 아이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한다. ‘블라지워스트크 같이 큰 고장’을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낫을 놓고 저렇게 우두커니 온돌만 지키’는 대비되는 상황에서 슬픔이 묻어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며, 더욱이 이동 중 아이와 부모가 생이별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극은 배가 된다.²³⁾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을 돌아 도착한 곳의 현실은 다음과 같았다.

제갑동사람들이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10월중순 어느 날 아침에 내린곳은 씨르다리아 하류지방 한 작은 정거장이었다. 구역농업부 부장이 자동차들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중략) 동쪽 지평선을 새빨강계 물들인 노을을 꿰뚫고 해가 떠오르며 따스한 기운을 뿌린다. 한달이상 뜻하지 않은 《려행》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은 별판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신이 나서 짐들을 날라다 자동차에 싣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시야에 안겨드는 것은 사방이 다 까마득히 펼쳐진 지평선과 무연한 별판, 산도 수림도 없고

22) 김기철, 「이주초해: 두만강-씨르다리아강」, 『레닌기치』, 1990. 04. 11., p.4.

23) 실제로, “정착 초기단계에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수많은 한인들이 몇 개월씩 자신들의 가족을 찾(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김광환·이백용 옮김, 오성환 감수,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 시대정신, 2004, p.321)”아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원치 않는 이산이 장소공포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시나무관목숲과 반모래불, 보면 볼수록 스산하기 그지 없다.

-갈수록 심산이라더니 이런텔 왔구나! / -인젠 농사도 다 해먹었어! /
-과히 상심할 것 없습니다. 살면 농사할 곳이야 있겠지요.

두만이는 락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들을 타고 살 곳이라는데를 와보니 갈밭속 호수가에 두
채의 찌그러져가는 토벽집들과 지붕이영 갈들이 거의 날려가 서까래들이
블룩블룩 들어난 양우리가 있을뿐이오, 살만한 집이라고는 없다. 사람들은
자동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떠들어댔다.

-겨울에 다 얼어죽으란거요?

두만이는 부장에게 따지고들었다.²⁴⁾

앞으로 고려인들이 살아갈 곳은 ‘까마득히 펼쳐진 지평선과 무연한 벌
판, 산도 수림도 없고 가시나무관목숲과 반모래불, 보면 볼수록 스산하기
그지 없’는 곳이며 ‘찌그러져가는 토벽집들’과 ‘서까래들이 블룩블룩 들어
난 양우리가’ 전부였던 황폐한 공간이었다. 실제로 「까자흐 소비에트 사회주
의 공화국에 조선인 이주민을 분포시키는 것에 대한 계획서(소비에트 사회주
의 연방공화국 내무인민위원회)」를 보면 고려인들은 거의 국영농장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대부분이 농민이자 원동에서도 집단농장에
서 생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으나,
“황폐화되고 쇠퇴된 까자흐스탄의 농장으로 조선인들의 무료 노동력을 보
낼 것을 규정”²⁵⁾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가 우리의 욕망
에 부응할 때 세계는 광활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지만, 세계가 우리의 욕망
을 좌절시킬 때 세계는 답답한 느낌을 준다”²⁶⁾고 하면, 고려인들에게 주어

24) 김기철, 「이주초해: 두만강-씨르다리야강」, 『레닌기치』, 1990. 04. 20., p.3.

25)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우효) · 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 편, 앞의 책,
p.108.

26)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앞의 책, p.113.

진 현실은 ‘스산하기 그지 없’는 장소공포와 다름 아니었다. 문제는 그러한 장소공포가 어떻게 장소애로 전환하는가이다.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던 장소공포가 장소애를 띠게 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Ⅲ. 카자흐스탄의 고향 공간

1937년 10월 25일에 극동으로부터 에스엔게 지역으로의 이주는 거의 종료가 된다. 한인들은 카자흐스탄에 20,170가구(95,256명), 우즈베키스탄에 16,277가구(76,525명)로 분산이 되었다²⁷⁾고 하나 이를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 3일 만에 준비를 마치고 이주를 감행할 만큼 그리고 도착해서 토굴생활을 해야만 했던 형편과 공개된 비밀문서의 내용이 제대로 수행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차치하고²⁸⁾ 집단이주 이후 고려인들이 살아내야 했던 생활공간을 살피는 일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고려인들의 생활공간은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흐루쇼부가 스탈린을 격하한²⁹⁾ 이후 1957년 3월 3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에스엔게 지역으로 한정되

27) 보리스 박 · 니콜라이 부가이, 앞의 책, p.317.

28) 얼마나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원치 않는 집단이주를 당해야만 했으며 그 와중에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9) 당시에 흐루쇼브의 연설은 『레닌기치』 신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제XX차 당 대회에 제출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결산 보고: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일 비서 엔. 에스. 흐루쇼브 동무의 보고’에는 “당은 경제적, 국가적 및 당적 활동의 각 분야에 있는 결점들을 활발히 발로하였으며 우리의 전진 운동을 장애하는 모든 낡아빠진 것을 결단적으로 쓸어버리면서 낡아진 관념들을 깨트렸습니다(『레닌기치』, 1956. 02. 17., p.1)”라는 구절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어 있었다.³⁰⁾ 한마디로 고려인들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었다.³¹⁾

부연하자면, 고려인들에게 중앙아시아는 유배지나 다름이 없었다.³²⁾ 원동에서 러시아혁명에 투신하여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데에 일조했던 입장에서 그러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고사하고 소비에트 당국으로부터 내쳐진 존재로 전락하는 비애를 맞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소수민족으로서 고려인들에게 중앙아시아는 어떠한 의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었다. 버려졌다는 상실감이 너무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기에 공간은 비로소 장소로 바뀌기 시작한다. “공간은 명확한 뜻과 의미를 획득함에 장소로 전환하게 된다.”³³⁾ 덧붙이자면, “정지함으로써 장소는 인간이 느끼는 가치의 중심이 될 수 있”³⁴⁾는 것이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으나

30) 1957년 이전에도 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분증을 수령한 경우도 있기는 했다. 최초 이주 시에는 이주된 장소에서만 5년 기한으로 거주하는 신분증이 발급되었다가 이후 5년이 만기되면 거주에 제한이 없는 신분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것은 1946년 8월부터 1947년 3월까지로 한시적이었다. 이때는 잠시 조선인이 ‘특별 이주민’의 범주에서 벗어난 듯했으나 어디까지나 조선인은 ‘특별 이주민’으로서 행정·경찰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했다(「극동지방에서 조선인을 이주시킨 문제에 따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내무부 조사서에서」,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우호)·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 편, 앞의 책, pp.257-258).

31) 「삼각형의 면적」(송라브렌찌)에서는 “1949년까지는 원동에서 카사흐스탄에 이주당해온 사람들에게 공민증이 없었습니다. 거주중 비슷한것이 있었을때(『레닌기치』, 1989. 07. 08., p.4)”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앞서 주석 30)의 역사적 기록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198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과거의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수도 있으며 실제 그러했을 수도 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32) 이상근에 따르면, 고려인들을 먼저 정착시켰던 우슈토베는 반 사막지대로서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원주민 이외에 유럽인의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한다(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고난을 극복하여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 국학자료원, 2010, p.318).

33)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앞의 책, p.219.

34) 이-푸 투안, 위의 책, p.222.

낮선 공간에 정지를 했고 그 속에서 삶을 꾸려야만 했던 것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해야 했던 처지를 감안하면 여기서 살아낸다고 하는 데에는 남다른 노력이 뒤따라야 했다.

고려인들이 정착한 곳은 주로 강과 가까운 곳이었다. “중앙 아시아에 이주 되어온 한인들은 아랄 바다에 흘러 들어오는 두 강인 아무다리야와 스르다르야 강 근처와 카작스탄의 발하쉬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까라말 및 일리강 계곡에 주로 정착했다.”³⁵⁾ “유역은 생계를 보장한다”³⁶⁾는 점에서 지리적 특성상 농사가 가능한 지역들이었고, 농업에 특출한 능력을 지닌 민족으로서 고려인들은 소비에트의 체제에 부합하여 이곳에서 집단농장을 형성하며 삶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혁명 이후 1920년대 후반부터 농업집단화에 들어섰던 것을 상기하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배경으로 고려인의 삶을 형상화한 글쓰기를 공간적으로 해석하면 운문적 글쓰기와 산문적 글쓰기를 막론하고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공간적 세계관은 자연, 콜호즈(колхоз), 구역(촌)에 닿아 있다. 자연이라고 하면 공화국명칭인 카자흐스탄 자체가 마치 거대한 공간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이고 더불어 씨르다리아강과 천산은 농사를 짓는 데 따른 고마움의 대상으로 형상화가 된다. 콜호즈나 구역(촌)은 고려인들만의 생활공간으로서 끊임없이 호명되고 있다.

씨르다리아강은 본래가 “빠미르산맥에서 발원하여 따지끼쓰판, 끼르기시야, 우스베끼쓰판 그리고 카사흐스판을 지나 아랄해로 들어가는 중아시

35) 고송무, 『쏘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p.50.

36) 이-푸 투안, 『토포필리아』, 앞의 책, p.181.

야 백성들의 젓줄기와도 같은 어머니강”³⁷⁾으로 인식되어 왔다. 「행복의 물줄기」(1940)에서는 “저강을 딸아 쪽 늘어 놓인 / 만리평야 기름진 땅우엔 / 금빛나는 알곡과 면화농장 / 옥토에서 싹져오르는 벼와 목화 / 저강을 마시고 자라고자란다”³⁸⁾라고 노래하며 씨르다리아강을 예찬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씨르-다리아」(1940)에서는 “사랑하는 동무야 땡이 번적이어 / 이 벌판 깨뜰러 큰도랑치자! / 씨르-다리아 휘몰아다 광야에 젓주어 / 해밝은 이 벌판에 행복의 곡치 떠날리자”³⁹⁾라고 하며 농사로 일구어갈 행복을 직설적으로 토로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고향 전체로 확장된다. 「봄맞음」(1941)에서 “내마을, 새마을, 고향 마을 / 해빛아래 별나라처럼 반짝거리고”⁴⁰⁾ 라며 고향을 예찬하며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실제 현실은 그렇게 밝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나⁴¹⁾ ‘모국’으로까지 인식하기에 이른다.

1) 아니다. 아니온다. / 한번가신 어머니 아니온다.

이것은 모도다 꿈이다. / 고통과 원한에 가신 어머니
애처럼 우는 나를 찾으려 / 무정한 나의 어머니 아니온다.

나는 녀우도 설버서 외로히 / 의지를 찾다가

이제야, 진정한 어머님 품속에 / 안겼노라.

모국의 넓은땅 힘끝 끌어안고 / 인정과 영접에 녀우 깃뻘서

37) 한진, 「공포」, 『레닌의기치』, 1989. 05. 25., p.4.

38) 최양석, 「행복의 물줄기」, 『레닌의기치』, 1940. 04. 28, p.3.

39) 연성룡, 「씨르-다리아」, 『레닌의기치』, 1940. 04. 28, p.3.

40) 신현옥, 「봄맞음」, 『레닌의기치』, 1941. 03. 21, p.3.

41) 실제 현실은 많은 한인들의 방랑으로 이어졌다. 무단이주의 비율이 높았는데, “한인들의 방랑원인은 ‘대다수 한인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데(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앞의 책, p.332)” 있었다고 한다. 시적 형상화와는 달리 고려인들이 처했던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보여진다.

검은땅 맘끝 입맞추며 / “어머니!” 소리쳐 불렀노라.

- 리은영, 「어머니」 中에서⁴²⁾

2) 나는 께뜨멘 높이 들어 땅을 찍으며 / 금년에는 내가 우리 꿀호즈의
이 넓은땅 굶을 짙어 참외를 심어 / 썩은맘 비료내고 흘리는 맘 첫물 주어
못박힌 이 손으로 깃을 매어 / 씨르-다리야 흙물에서 길러내리라!
그리하여 수확의 가을이 돌아오면 / “내조국”을 높이 부르며 건우어서
한기차 잔득 실고 모스크바루 가리라 / 크고큰, 제일큰 참외를 골라서
농업전람회에 내 성과를 자랑시키고, / 새마음, 새뜻으로 랑끝 닉어진
제일 맛있는 참외, 제일 단 참외를 / 살뜰히 천백번 골고 골라서
귀중하신 아버지, 거룩한 쓰팔린에게 / 내마음, 내뜻으로 들이려하노라!

- 리은영, 「나의뜻」 中에서⁴³⁾

1)의 「어머니」(1941)에서 화자는 꿈속에서도 어머니를 찾아 헤맨다. 어머니를 찾지 못하고 꿈에서 깬 화자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진정한 어머니 품’을 ‘모국의 넓은땅’에서 찾게 되며 ‘검은땅’과 동일시하는데, 그것은 2)의 「나의뜻」(1941)에서 ‘씨르-다리야 흙물’이 흐르는 ‘내조국’과 마찬가지로 『레닌기치』 신문이 소비에트 당국의 정책들을 홍보하는 기관지라는 것을 감안하고 거기에 실린 문예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모국’이라 부르며 체제를 지지하는 공공성의 강조⁴⁴⁾는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이 같은 모습은 공공성으로 고향과 국가를 연결하면서 신명을 보이는 사람들의 자발적 행위가 공공성을 매개로 고향과 국가에 회수되는 작위⁴⁵⁾로 보이기

42) 리은영, 「어머니」, 『레닌의기치』, 1941.3.21., p.3.

43) 리은영, 「나의 뜻」, 『레닌의기치』, 1941.4.16., p.3.

44)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공공성은 소비에트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전제에서, 노동의 신성성 강조, 공공을 위한 개인 희생의 정당화, 사적 소유 관념의 경계, 양성평등, 조국애호전 사업에의 헌신, 전인적 사랑의 강조 등으로 압축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공공성이 고려인문학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의식이다.

도 한다.

비록 작위였다고 하더라도 씨르다리야강은 분명 고려인들이 끌호즈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준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⁴⁵⁾ 집단이주의 배경부터 중앙아시아에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을 형상화한 ‘이주초해’라는 작품에는 부제가 붙어 있다. 부제의 제목은 ‘두만강-씨르다리야강’인데, 작가 김세일은 헤일 수도 없는 공간적 거리를 초월하여 두 강을 병렬관계로 연결을 짓고 있다.

현지답사를 떠난 사람들을 태운 자동차가 처음 가 닿은 곳은 씨르다리야강반이었다. 답사자들이 차에서 내려 강언덕에 이르자마자 누구 입에선 지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두만강과 같은 장강이구나!

두만강! 입에 오르고 귀에 익은 이 말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번개치듯 고향생각을 일으키며 그들로 하여금 미여지는 가슴을 끌어안고서서 출렁 출렁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부장이 자랑찬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이것이 씨르다리야강입니다. 천년만년, 몇천몇만년을 흘러흘러 이 평원에 삶을 주는 생명수! 우리는 평원에 젖주는 이 강을 은혜로운 어머니라고 부르지요.⁴⁷⁾

인용문은 원동에서 고려인을 먹여 살렸던 어머니와도 같은 강이 두만강이었다면 중앙아시아에서의 그것은 ‘씨르다리야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복

45)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옮김,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p.143.

46) 그래서인지, 고려인문학에서 ‘천산’과 ‘씨르다리야강’은 운문과 산문을 가리지 않고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자주 언급되는 장소이자 지명들이다.

47) 김기철, 「이주초해: 두만강-씨르다리야강」, 『레닌기치』, 1990. 04. 20., p.4.

선에 다름 아니다. 이 작품에서는 꿀호즈의 이름을 ‘붉은 노을’ 꿀호즈라고 명명하고 씨르다리아강물로 농사를 짓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로어화한 학교’를 세우며 고려인들의 미래를 온전히 아이들에게 걸었다. “그래야 우리 마을이 제일 대학생 많은 마을이 되지. 너희들이 없어도 농사는 짓는다”⁴⁸⁾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러시아식으로 교육하며 러시아와 동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본토박이들과 동화하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공간적 차원에서 장소공포를 해소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졌다.

부연하자면, 고려인문학 속에서는 자녀를 러시아식으로 교육하고 러시아인과 혼인하는 모습 등을 형상화함으로써 러시아에 동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다. 특히 러시아인의 전쟁을 고려인의 전쟁으로 인식하는 것, 즉 전쟁을 매개로 러시아인과 조선인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일은 가장 주효했던 동화의 방식이었다.⁴⁹⁾ ‘소독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붉은 별들이 보이던 때」(1963)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러시아혁명, 즉 국내전쟁(공민전쟁) 당시에 러시아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조선인이 소독전쟁 당시 피난민이 되어 크술오르다를 지나는 러시아인 가족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보은하는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서사에서 독일은 일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대상으로 러시아와 조선 모두의 적으로 읽힌다. 고려인문학은 일제에 항거했던 역사와 함께 러시아 혁명에 투신했고 소독전쟁에 일조했던 조선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형상화하는 역사성을 강조하는데,⁵⁰⁾ 일반적으로 “장소에 대한 충성심을 설명할

48) 김기철, 「이주초해: 두만강-씨르다리아강」, 『레닌기치』, 1990. 06. 06., p.4.

49) 전쟁을 매개로 한 작품의 형상화는 러시아식 교육이나 러시아인과의 결혼 등을 묘사한 작품보다 월등하게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화의 양상과 관련한 내용은 앞서 『조선 사람 · 소비에트 고려인 · 고려사람 그리고 “고향”』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때는 양육의 끈끈함(어머니 대지라는 주제)을 지적하거나 역사적으로 접근”⁵¹⁾한다. 덧붙이자면 전쟁은 출정자를 그가 우리 향리의 출신임을 거론하며 출정자에 대응하는 수사로 국가적 영예를 드높였던 전쟁 영웅을 언급함으로써⁵²⁾ 고향을 실체화한다. 부연하자면, 소설 『홍범도』를 위시하여 전쟁서사에서 형상화된 고려인 전쟁영웅들은 러시아에 동화하고자 했던 고려인의 욕망이 투사된 레토릭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에트에 동화하고자 했던 인간힘이 결과적으로는 장소공포를 해소하는 토대가 되어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스탈린이 격하되고 고려인에게 공간적으로 이주의 자유가 주어지자 러시아식으로 교육을 받은 고려인 아이들은 꼴호즈를 떠나 대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인종을 초월하여 사랑을 하고 이민족 간 혼인으로 가족을 만들어 나갔다. 「사랑」(1970)과 같은 작품에서는 고려인 청년과 카사흐인 처녀가 결혼을 하며, 「류바」(1972)에서는 고려인 청년이 러시아인 여성과 결혼을 하여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는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주민이 원주민과 결합을 하고 생활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는 가족을 구성하게 되는 관계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이-푸 투안의 말대로 그러한 변모는 한 공간에서 생활을 시작한 이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이 형성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주 이후에 세대를 달리하며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여전히 꼴호즈에 남아 있는 1세대들을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50) 홍범도는 러시아혁명에 투신했던 고려인 영웅으로서 고려인문학을 대표하는 거대서사의 주제가 되며, 소독전쟁의 경우는 1940년대 주가이 알렉세이의 「영웅」(1944)에서부터 80년대 연성용의 「어머니」(1988)에 이르기까지 고려인문학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주제이다.

51) 이-푸 투안, 『토포필리아』, 앞의 책, p.155.

52) 나리타 류이치, 앞의 책, 같은 곳.

창세의 눈에는 눈물이 그랬으며 그의 입술은 떨렸다.

-이 집의 그 어디에나 너의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란 없다. 지어 이 마당에 서있는 치나라나무까지도 너의 어머니가 심어놓은 것이다. 나는 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갈 수 없다.

실상 창세로인은 이 고향을 떠나갈 수 없다. 하도 인연맺은 일이 많으니까.

특히 땅과의 인연이 깊다. 갈밭을 베내고 밭을 일구며 집을 지었다. 그 밭에 땀으로 물주었다. 고목이 땅속에 뿌리를 박듯 그도 역시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박았다. 한번은 그가 휴가를 말고 춘길이란테 놀러갔었다. 그러나 사층집창문앞에 홀로 앉아 철갑을 씌우듯 아스팔트로 덮인 땅을 내다보고 있거란 안타까웠다.

(중략)

-춘길아, 이 꼴호스는 너희들의 고향산천이다. 너희들은 이 땅의 쌀을 먹고 이 땅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자라났다. 고향땅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행복이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이 아니다. 타곳이 아닌 제 고향산천을 아름답게 꾸리고 거기에서 제 행복을 찾아야 한다.⁵³⁾

위의 「영원히 남아 있는 마음」(1977)에서 도시로 나간 아들 춘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꼴호즈에 홀로 남아 있는 아버지를 도시로 모셔 가기 위해 꼴호즈를 방문하며, 이때 아버지인 창세는 아들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건넨다. 아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공간적으로 대비되며 전개되는 대화 속에서 창세는 자신에게 꼴호즈는 ‘고목’과도 같이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 ‘고향산천’이라는 얘기를 하며 아들의 권유를 거부한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 온 공동의 활동과 편안한 즐거움에 대한 기억과 함께 온다”⁵⁴⁾고 했을 때, 창세에게는 꼴호즈가 바로 그와 같

53) 연성용, 「영원히 남아 있는 마음」, 『레닌기치』, 1977. 03. 31. ~ 04. 05., p.4.

은 공간으로 변모를 한 셈이다. 장소공포가 장소애로 바뀌며 비로소 고향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려인들에게 고향이란 “구성되고 이야기되는 것에 의해 드러나는 공간”⁵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1991년에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에스엔계 지역에서 구성했던 고향 공간이 고려인들의 의식 저편으로 밀려난다는 데 있다.

천산 너머 내 고향은 / 아득히 멀어도
그리움이 가득차 / 마음 속 깊은 곳에 설레입니다.

구름 너머 / 저쪽의 아지랑인양
봄별 타고 이글대는 / 고향 사투리

낮선 땅 떠도는 / 나그네를 달래주듯
정답게 손곤대며 / 살뜰한 향수로 달래줍니다

고향이사 천산 너머 / 멀리 있어도
마음 속 깊은 곳에 / 넘실 댁니다.⁵⁶⁾

- 박현, 「천산 너머 내 고향은」 전문

소련방이 해체된 이후 1996년에 발표된 위 시에서 화자가 있는 공간은 ‘천산’이 있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스스로를 ‘낮선 땅 떠도는’ ‘나그네’라 칭한다. 그동안은 고향 공간으로 생각했던 곳이 ‘낮선 땅’이 되고 그 속에 살았던 화자 자신은 ‘나그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억압된 기억의 복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은 분명하나 그

54)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앞의 책, p.255.

55) 나리타 류이치, 앞의 책, p.28.

56) 박현, 「천산 너머 내 고향은」, 『고려일보』, 1996. 09. 28., p.5.

것은 강제적 집단이주를 체험한 세대에 국한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에스엔 게 지역으로 집단이주된 이후 근 50여 년을 살아온 생활공간을 뒤로하고 원동만이 고향이 된다는 사고에는 “고국에 단단히 뿌리 박혀 있는 공통의 민족적, 국가적, 지리적 기원을 강조함으로써 디아스포라 주체를 문화적으로 통합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⁵⁷⁾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놀음의 법」(1991)에서 조선말을 몰라 “난 자기 조선말을 아버지가 사는 곳에 남겨 두고 온것이다”⁵⁸⁾ 라고 고백하거나 「그 고장 이름은?…」(1991)에서 임종의 순간 조선말을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⁵⁹⁾고 얘기하는 딸의 모습에서 집단이주 세대가 생각하는 ‘우리’에는 조선어를 상실한 조선인은 포함될 수 없는 단절을 내포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출생하여 조선어를 모르는 2세대의 입장에서는 “중요한것은 이민족, 손님이라는 없앨수 없는 감정은 인종그룹의 떼여낼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된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카사흐스탄이나 전반적 중앙아시아는 고려인들에게 있어서 유복한 고장이라고 할수 있다. 인종차별이 본토배기들에 비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⁶⁰⁾라고 예기하는 것이 더욱 솔직한 감정일 것이다.

조선을 등지는 출향을 감행한 것이 진정 원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품은 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기에 이주 직전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조선에 가서 묻히진 못해도 두만강가 까이에나 묻힐까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된다단 말이오”⁶¹⁾ 라고 토로한

57) 데이비드 앳킨슨·피터 잭슨·데이비드 시블리·닐 위시본 편저, 앞의 책, p.335.

58) 강알렉산드르, 「놀음의 법」, 『고려일보』, 1991. 08. 30., p.4.

59) 한진, 「그 고장 이름은?…」, 『고려일보』, 1991. 08. 01., p.4.

60) 강알렉산드르, 「집으로 돌아가다」, 『고려일보』, 1992. 03. 03., p.4.

61) 김기철, 「이주초해: 두만강-씨르다리야강」, 『레닌기치』, 1990. 04. 13., p.4.

것은 진심이었을 것이다. 본래 “이산은 ‘기억’ 속에 있는 ‘고향’에 집착하면서 ‘고향’에 대한 ‘비동일화’를 견지하는 자세이며, 그것은 ‘뿌리없는 풀’과 같이 모든 장소를 상대화한다. 즉 어떤 장소에 대해서도 애착감과 거리감을 지니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산자에게 ‘고향’은 고유명을 가지면서 추상화된 공간이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현재의 장소를 상대화”⁶²⁾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동을 마음의 고향으로 품고 있던 세대에 국한되는 얘기일 뿐, 소비에트화하여 조선어를 상실한 세대에는 적용할 수 없을 지도 모르겠다.

IV. 우즈베키스탄의 고향 공간

‘우즈베키스탄의 고향 공간’으로 따로 한 장을 마련하였으나 카자흐스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에 비하면 공간적 형상화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앞서 살핀 자료에서 보자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된 고려인이 95,256명이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76,525명이었다. 인구 대비로 보자면 19,000명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나 우즈베키스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운문이나 산문 모두 현전하게 적다. 산문의 경우에는 단순히 공간적 배경 정도만 언급되는 경우가 일반이다. 아무래도 고려인들이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당시에는 『레닌기치』에 한정되어 있었고 신문사가 카자흐스탄의 크술오르다로 이주해 온 것이 일정 부분 간극을 만든 원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⁶³⁾ 공간적 거리 때문에 우즈베

62) 나리타 류이치, 앞의 책, pp.301-302.

63) 고려인 신문인 『레닌기치』는 원동에서 발간된 『선봉』(1923. 03. 01.) 신문의 후신으로 카자흐스탄 크술오르다로 옮겨와 1938년 5월 15일에 발간하게 된다.

키스탄에 거주했던 고려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배경으로 고려인의 삶을 형상화한 글쓰기는 공간적 형상화면에서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공간적 세계관 또한 자연, 꿀호즈, 구역(촌)에 닿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카자흐스탄공화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 씨르다리아강이 고마움의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무다리아강이 그러한 대상이 되고 있다.

- 1) 일평생 먹은 마음 변치않고 / 길이 길이 흘러가는
아무다리아의 굳은 절개 / 만년 흐르는 긴 세월에 너는-
일궂놓은 역사도 굉장하다 / 인적 없던 초원에도
웅장한 건축이 일어서고 / 한없이 묵어있던 평야에도
거대한 농장이 솟는다 / 말랐던 땅우에
오곡이 무성하고 / 시들었던 나무 뿌리에도
새 싹이 돌아난다 / 백초장 넓은 벌판에
눈부시는 꽃송이 피었고 / 끝없이 넓은 평야에
황금 곡과 나무꾼다⁶⁴⁾

- 리용필, 「아무다리아의 아침」 중에서

- 2) 처음 오니 서글프기 짝이 없어 / 다리조차 아파서 어쩔 줄 몰랐소
발을 갈아 논판에 씨를 뿌리고 / 새집 짓고 과일나무 심어 놓으니
밭도 높이고 다리'병도 떨어졌소 / 살기 좋은 이 곳이요, 정이 드는 이 곳이라
생활이 무르익어 자랑하고 싶으오니 / 손님으로 오시오 큰상 차려 드리 오리다.

(중략)

당의 부름 따라 인민이 계획 잡고 나서니 / 아무-다리아 물'줄기도 옮겨 놓으며
만 년 묵은 이 평원도 변져 지누나! / 인민과 기술이 손 맞추어 일하니
이 땅의 황금 곡식 산태같이 무너지고 / 멀지 않은 공산 사회 환이 보이요.

64) 리용필, 「아무다리아의 아침」, 『레닌기치』, 1958. 02. 28., p.3.

생활이 무르익어 자랑하고 싶으오니 / 손님으로 오시오 큰상 차려 드리 오리다.⁶⁵⁾

- 안일, 「손님으로 오시요」 中에서

1)의 「아무다리야의 아침」(1958)에서는 ‘한없이 묵어있던 광야에도 / 거대한 농장이 솟는다 / 말랐던 땅우에 / 오곡이 무성하고 / 시들었던 나무 뿌리에도 / 새 싹이 돌아난다 / 백초장 넓은 별판에 / 눈부시는 꽃송이 괴었고 / 끝없이 넓은 평야에 / 황금 곡과 나부긴다’라고 노래한다. 농장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눈부시는 꽃송이’와 같은 면화를 생산하며 ‘황금 곡과’를 만들게 해 준 고마운 존재로 아무다리야강을 예찬하고 있다. 2)의 「손님으로 오시요」(1962)에서는 ‘처음 오니 서글프기 짝이 없’었으나 그랬던 곳이 ‘살기 좋은 이 곳’이 되고 ‘정이 드는 이 곳’이 되었다. ‘처음 오니 서글프기 짝이 없어’라는 것은 집단이주를 유추할 수 있거니와 ‘만 년 묵은 이 평원’은 1)의 ‘인적 없던 초원’이자 온갖 풀이 무성한 ‘백초장 넓은 별판’과 같다. 그랬던 무명의 장소가 ‘생활이 무르익어 자랑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때의 ‘이 곳’은 집단농장을 의미할 터, 화자는 ‘손님으로 오’면 ‘큰상 차려 드리’겠다고 꼴호즈에서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그것이 ‘공산 사회’인 바 체제를 옹호하는 시편들이나 이 부분을 차지하고 보면 장소공포가 해소되며 낯선 공간을 고향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장소애를 목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꼴호즈라는 고려인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고려인들에게 집단농장의 성공은 고려인만의 성취를 넘어 고려인을 불신했던 소비에트 당국에 고려인의 존재를 표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했다.⁶⁶⁾ 비록 후방에서나마 농사를 통해 금전적으로 전쟁을

65) 안일, 「손님으로 오시요」, 『레닌기치』, 1962. 06. 23., p.3.

66) 성동기에 따르면 김병화는 소독전쟁 이후 사회주의노동영웅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지원할 수 있었다는 데에 고려인들은 큰 의미를 두었다. 맹동욱은 「2중영웅 김병화의 동상앞에서」(1977)라는 시에서 ‘허나 세상 떠난 그대 앞에서 / 말없는 그대 동상앞에서 / 안녕하십니까 / 이 말은 / 이 인사의 말을 드림은 / “영웅은 언제나 죽지 않는다” / 그 말을 하도 받고 싶어서 입니다’⁶⁷⁾ 라고, 즉 죽었으나 살아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노래하는 것도 그러한 사고가 반영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북극성 폴호즈’의 회장이었던 김병화를 기리는 시편인데, 그는 사회주의노동영웅의 칭호를 두 번이나 받았기에 ‘2중영웅’이라 불렸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을 대표하는 고려인영웅으로서 그의 선택은 일반 고려인 대중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1) 김병화는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아버지와 함께 낫선 이국땅에 정착하기 위해 피땀을 흘렸던 제2의 고향은 1961년 그의 눈앞에 사라지고 없었다. 1937년 강제 이주를 당한 이후 마을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병화는 결심하였다.

‘나의 고향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다. 그곳에 흉상을 세우리라!’⁶⁸⁾

2) 성준은 출장일을 다 보고 신한촌으로 떠났다. 시내에서 전차를 타고 꾸뻬롭쓰까야정류장에서 내려 신한촌을 향하여 언더그길을 걸어올라

“스탈린을 비롯한 소비에트정부는 고려인을 불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전지에서 보여준 놀라운 업적과 공헌을 ‘영웅’이라는 칭호로 보상함으로써 고려인이 소비에트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성동기, 『우즈베키스탄 불멸의 고려인 영웅 김병화』, 재외동포재단, 2006, p.217).

67) 맹동욱, 「2중영웅 김병화의 동상앞에서」, 『레닌기치』, 1977. 11. 16., p.3.

68) 성동기, 앞의 책, pp.224-225.

갔다.

언더ㄱ에 올라서니 신한촌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게딱지같은 집들이 조로○조로 들어앉았던 그 자리에 고층건물들이 우뚜ㄱ우뚜ㄱ 일떠섰고 바위들이 울투○불투○하던 거리들은 아스팔트로 반듯하게 포장되었다.

성준은 예스날에 서울 거리라고 부르던 거리끝까지 내려와 발걸음을 멈추었다. 예스날 이 왼쪽에는 약간 경사진 축구장이 퍼르쳐졌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고층건물들이 파ㄱ‘들어왔다.⁶⁹⁾

호루쇼브가 집권한 이후 고려인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지만 고려인들은 원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본래의 고향으로 회귀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 인용문에서 그 답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 ‘제2의 고향’인 원동이 현재는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 그것이며, ‘고층건물’이 대신하고 있는 ‘신한촌’의 전경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돌아갈 이유가 없어진 때문이나 더불어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을 것이다. 40여 일을 기차를 타고 왔다는 충격이 주는 공간적 거리감을 극복해야 했을 것이며 그보다 중요했던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이 에스엔게 지역에 있었다. 원동에서 일구었던 고려인의 모든 문화적 가치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었다. 학교와 신문사를 비롯해서 극단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고려인의 문화적 자산들이 에스엔게 지역으로 옮겨 왔다. 더 이상 원동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다시금 원동으로 회귀하는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이주를 감행하는 때는 소연방이 붕괴하면서부터인데, 그때는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위기 및 이것으로 야기된 정신적 진공상태는 결국 제 민족들

69) 전동혁, 「권총」, 『레닌기치』, 1979. 11. 22., p.4.

로 하여금 민족정신의 가치 및 민족적 자의식을 최우선적으로 제기”⁷⁰⁾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민족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V. 결론: 돌아오지 않을 권리

고려인문학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 성과들은 연구 방법론으로 고려인의 억압된 기억에 방점을 찍고 한국적 정서, 즉 한국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것은 일면 당연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다 보니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열린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닫힌 태도로 일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이러한 관점에 설 때 고려인이 쓴 상당수의 텍스트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에 표방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고려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스탈린을 비롯한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고려인의 삶은 공간적으로 제한적이었고 억압적이었으며 그 결과 사고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 그동안 숨겨 왔던 진실을 토로하는 방향으로 문학적 형상화가 기울어질 것을 예상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며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억압된 상태에서 행해진 글쓰기의 행간을 읽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상황이 변한 이후 억압 속에서 해 왔던 것을 모조리 부인한다고 해서 통시적인 삶과 글쓰기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변한 이후 기술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글쓰기는 또한 그 나름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

70) 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한 발레리 켄트게이비치, 김태항 역, 『고려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高談社, 1999, p.380.

려 한국적 민족주의에 천착하는 경우 앞서 강조했던 대로 ‘디아스포라 주체를 문화적으로 통합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황이 반전된 이후 수행했던 복원된 기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만은 없다. 소연방이 붕괴하기까지 소비에트 체제에서 살아온 70여 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이청준의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2007)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작품에서 ‘그곳’은 ‘조국(조선 혹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소설 속에는 그 조국을 세 번 잊은 혹은 잊고자 하는, 즉 자신의 삶을 ‘거짓’이자 ‘버려진 삶’이라 표현하는 ‘유일승(유 세르게이)’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그곳’이란 낱말이 주는 공간적 거리만큼 그는 “한사코 내 모든 걸 잊고 소련 사람이 되려고 마음속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게야.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⁷¹⁾ 언어까지도 잊어야 했다고 말한다. 또한 6·25전쟁을 두고서는 “그 전쟁을 용서하기 위해, 그 조국을 거꾸로 용서하기 위해서, 조국을 잃은 망국인에겐 지구 저편 한쪽에 그런 조국이 나마 하나로 뭉쳐 남아 있는 게 나아 보였으니까. 가고 싶지는 않아도 용서해야 했”⁷²⁾기에, 즉 ‘망국인’으로서 하나였던 조국을 추억하기 위해서라도 분단된 현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땅엘 가서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진 못하지만 여기서나마 살아남아 끝내 종생을 해야 하는 여기 이곳에서의 내 버려진 삶을 위해서(이곳에 숨어서 그렇게나마 가는 명맥을 이어온 내 가없는 삶을 위해서) 말이네. 그렇게 거짓 속에 허무히 낭비해온 내 하찮은 삶을 위해. 그러자니 그 조국도 다시 기억에서

71) 이청준,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열림원, 2007, p.65.

72) 위의 책, pp.66-67.

지워 없애야 하”⁷³⁾겠기에 세 번째로 조국을 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국을 다시 잊으려는 당위에는 자신의 삶을 위한 연민이 깃들어 있다. ‘하찮은 삶’이나 거기에도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고 터전이 있었던 셈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즉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떠났든 떠밀렸든 출향한 자에게는 그만이 살아냈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돌아오지 않을 권리’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민족을 초월하는 출향자만의 현실을 현실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도 디아스포라의 삶과 문학을 해석하는 의미 있는 시각일 것이다.

73) 위의 책, pp.80-81.

【참고문헌】

1. 자료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 1938. 05. 15. ~ 1990. 12. 29.

고려인 신문, 『고려일보』, 1991. 01. 03. ~ 2002. 12. 27.

이청준,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열림원, 2007.

2. 논문 및 저서

강희진, 『아무다리야의 아리랑』, 문학들, 2010.

고송무, 『소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김낙현, 「디아스포라 고려인 시에 나타난 조국과 고향의 변화양상」, 『語文研究』 제43집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pp.323-349.

박안토니나, 「구소련 고려인 소설의 인문지리 연구: 『십오 만 원 사건』과 『금각만』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pp.205-231.

———, 「문학지리학 관점에서 본 김준의 장편소설 『십오 만 원 사건』에 관한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5집, 국제한인문학회, 2015, pp.81-112.

성동기, 『우즈베키스탄 불멸의 고려인 영웅 김병화』, 재외동포재단, 2006.

이상근, 『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고난을 극복하여 희망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 국학자료원, 2010.

이채문, 『동토(凍土)의 디아스포라』,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

임형모, 『조선사람·소비에트 고려인·고려사람 그리고 “고향”: 아마추어리즘에서 문예미학적 글쓰기까지』, 신아출판사, 2016.

———,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낯선 장소와 공간 연구: 문화지리학으로 읽는 고려인 문학」, 『한국문학과 예술』 제25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8, pp.189-220.

최강민, 『탈식민과 디아스포라 문학』, 제이앤씨, 2009.

김 게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2005.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김광환·이백용 옮김, 오성환 감수,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 시대정신, 2004.

리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우효)·김 예브게니 예브게니예비치(영웅) 편, 김명호 옮김, 『스탈린체제의 한인 강제이주: 구소련 국립중앙문서보관소 공개 극비문서』,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 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 한 발레리 셰르게이비치, 김태항 역, 『고려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高談社, 1999.
-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옮김,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 이-푸 투안, 구동희 ·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11.
- ,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 데이비드 앳킨슨 · 피터 잭슨 · 데이비드 시블리 · 닐 위시본 편저, 이영민 · 진종현 · 박경환 · 이무용 · 박배균 옮김, 『현대 문화지리학』, 논형, 2011.
-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7.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Володина Л. Библиография Кореи. 1917~1970. М., 1981.

Abstract

Soviet-Korean Literature(Writing) and Hometown Space
as the Field of Care Transfers

Im, Hyeong-mo

The life of Koryo-saram was extended from Yunhaju of Russia to Central Asia (С о д р у ж е с т в о Н е з а в и с и м ы х Г о с у д а р с т в). Living space of Koryo-saram changed from Yunhaju to СНГ, resulting to their writing changing, and redesigning to hometown space.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the diachronic meaning of hometown space in СНГ. In other words, the unfamiliar place and space in Soviet Central Asia. The text used to prepare this report is prose and verse in Soviet-Korean Literature, ЛЕНИН КИЧИ, КОРЕ ИЛЬБО from Soviet-Korean newspapers, and full-length novels. The methodology used to prepare this report is history, social history, cultural geography, anthropogeography. In conclusion, СНГ became a second hometown to Koryo-saram. As the field of care transfers, they redesigned their hometown. With the changing hometown, their cultural ties created new nationalism. There are included the following: Restoring the lost cultural assets and having intimacy in relation to the indigenous people, topophobia became a topophilia, which resulted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СНГ area into a hometown space.

Key words: Soviet-Korean Literature, Field of Care, Hometown Space, Place, Cultural Geography, Diaspora, ЛЕНИН КИЧИ, СНГ(С о д р у ж е с т в о Н е з а в и с и м ы х Г о с у д а р с т в), Kazakhstan, Uzbekistan, КОРЕ ИЛЬБО

임형모

소속 : 한성대학교 상상력교양교육원 조교수

전자우편 : simsimiwana@daum.net

이 논문은 2019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9년 6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6월 12일 게재 확정됨.

